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CHIESA SANTI MARTIRI COREANI
Oratorio di San Rocco al Gentilino (Piazza T. Lucrezio Caro 7, Milano)

(자) 사순 제3주일 11:00

본당신부 : 조병진 베니노

총회장: 정명룡 미카엘 부회장: 변의용 베네딕토 총무: 이승원 비오 1구역장: 우윤정 마리아

2구역장: 강한 프란치스코 청년구역장: 윤다혜 아멜리아 전례위원장: 허희숙 마리아

성모회장: 김지선 소피아 청소년위원장: 이승준 다니엘 대외협력위원장: 김산영 올리아

(자) 사순 제3주일 (2023. 3. 12.)

• 제1독서(탈출기 17,3-7):

그 무렵 백성은 3 목이 말라, 모세에게 불평하며 말하였다. “어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소?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려고 그랬소?” 4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었다. “이 백성에게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5 그러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원로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백성보다 앞서 나아가거라. 나일강을 친 너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6 이제 내가 저기 호렘의 바위 위에서 네 앞에서 있겠다. 네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대로 하였다. 7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비하였다 해서,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싸와 므리바라 하였다.

• 제2독서(사도바오로 로마서 5,1-2.5-8):

형제 여러분, 1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입니다. 2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5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6 우리가 아직 나약하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7 의로운 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8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 복음(4,5-15.19ㄴ-26.39ㄱ.40-42):

그때에 5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렀다. 6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걸으라 지치

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무렵이었다. 7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있었다.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10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1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12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13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15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9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20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21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22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23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24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25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시겠지요.” 하였다. 26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

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39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40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들을 머무르셨다. 41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42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미사 전례

본기도

하느님, 온갖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가 단식과 기도와 자선으로 죄를 씻게 하셨으니 진심으로 뉘우치는 저희를 굽어보시고 죄에 짓눌려 있는 저희를 언제나 자비로이 일으켜 주소서.

화답송

-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옆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 서처럼, 마짜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

복음환호송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 당신은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시니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을 주소서. ◎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보살펴 주시어, 교회가 복음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빛과 어둠을 올바르게 구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2.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이끌어 주시어, 국가와 국민 사이의 분쟁을 슬기롭게 조정하며, 인류의 진정한 일치와 발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게 하소서.
3.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날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가난으로 힘든 이들을 살피 주시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구해 주시고, 저희는 사순 시기의 정신을 올바르게 실천하게 하소서.

4. 본당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저희 본당의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소서.

영성체 후 기도

주님,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 이 세상에서 천상 양식을 받고 간절히 비오니 저희가 이 성사의 신비를 날마다 실천하게 하소서.

♪ 성가 ♪ (미사곡 바뀐 부분 포함)

입당 : 117 (지극한 근심에)

봉헌 : 212 (너그러이 받으소서) 213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성체 : 156 (한 말씀만 하소서) 515 (주여 자비를 베푸시어)

파견 : 281 (성 요셉)

공지 사항

♣ 3주 동안 **교환사목으로 밀라노한인성당을 찾아 주신** 주국진 보나벤투라 신부님을 환영합니다.

♣ 사순 시기 전례(기도) 및 의무

- 신앙의 신비여 :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 십자가의 길 :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오라토리오
- 금육제 : 14세 이상, 모든 금요일
- 판공성사 : 사순 시기 매 주일 미사 전

♣ 오라토리오 성전 출입은 '성전 출입구'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 대문 사용은 금지입니다.

- 소등, 문닫기, 개인 소지품 등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회의

- 사목회의 : 금일(12일) 미사 후

♣ 봉사자

	오늘 주일(12일)	다음 주일(19일)
제1독서	이승원 비오	변의용 베네딕토
제2독서	권혜림 세레나	구희선 스텔라
복사	엄소연 라파엘라 / 김익찬 암브로시오	엄재윤 엘리사벳 / 변가인 헬레나
계단·화장실	이승원 비오	변의용 베네딕토

♣ 지난 주일 우리의 정성

• 봉헌금 € 245.05 • 교무금 € 0.-